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3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첫 PC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제라'를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MMORPG 기대작 '아제라' 떴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의 첫번째 PC온라인 게임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의 첫 PC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제라'가 드디어 출격한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3월3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팀버게임즈가 개발한 아제라를 4월8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브랜드 사이트(a.zera.halgame.com/GameIntro)도 공개했다. 게임의 세계관을 비롯해 국가시스템과 마갑기, 캐릭터 등 정보가 담겨있다.

아제라는 고대 문명이 멸망한 세계에서 의문의 드래곤 사냥과 조우한 주인공이 신형 마갑기를 획득하면서, 국가 전쟁에 휘말리는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MMORPG다. 5종의 캐릭터를 제공하며, 전투에 특화된 마갑기라는 특수병기를 성장시켜 다른 유저들과 화려한 전투를 즐길 수 있다. 또 검재 소환이 가능한 특수한 무기를 획득할 수 있으며, 잠재력을 높이는 계승 시스템 등으로 다양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4년 동안 1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제작한 대작으로 올해 동시접속자 3만여명과 PC온라인게임순위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브랜드 사이트 오픈을 시작으로 게임과 관련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게임 정보 및 이벤트 등 게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근 기자

'라이트로 일름' 카메라 촬영 뒤에 초점 맞춘다

감도 ISO80~3200...자유자재 초점 변경 가능



촬영한 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카메라가 등장했다.

두리코씨엔티는 3월 3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초점 변경이 가능한 신개념 카메라 '라이트로 일름'(사진)을 국

내 최초 공개했다. 이 카메라는 라이트로사의 혁신 기술인 '라이트필드 마이크로 어레이 렌즈'를 통해 한 컷의 사진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4000만개의 빛에 담긴 거리와 색상, 밝기 등을 처리하는 독자 기술을 적용해 촬영 뒤 초점과 심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또 '라이트로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통해 한 컷의 사진만으로도 HD급 화질의 살아 움직이는 '리빙픽처'와 '3D 사진' 제작이 가능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움직이는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다.

제품의 감도는 ISO80부터 3200까지 지원한다. 터치스크린 LCD를 탑재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다. 또 8배 광학식 줌 렌즈가 탑재돼 30~250mm 환산 화각을 담을 수 있으며, 제품 내 와이파이를 내장해 촬영한 사진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일름 카메라는 두리코 전문소싱팀인 '포토앤아트'를 통해 예약 판매하며, 가격은 169만 원이다. 김병근 기자

이동통신 가입비 완전 폐지

SK텔레콤 이어 KT·LG유플러스도 3월31일부터 없애

이동통신 가입비가 1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KT와 LG유플러스는 3월31일부터 가입비를 완전히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 신규 가입 고객은 7200원, LG유플러스 고객은 9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최초 도입된 이동통신 가입비는 19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KT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가입비를 2만4000원에서 7200원까지 내린 바 있다. 또 이번 가입비 폐지로 346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2013년부터 2014까지 3만원에서 9000원으로 가입비를 내렸으며, 이번 완전 폐지로 연간 367억원의 통신비가 감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근 기자

“매일 10분 껌씹기, 입안 세균 제거에 효과”

껌씹기와 충치예방과의 상관관계

美 학술지 세균제거 관련 연구 발표
충치·박테리아 등 세균 억제 효과
스트레스 해소·면역력 저하도 예방

껌을 매일 10분씩 씹으면 충치와 박테리아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입안의 세균 1억마리를 없앨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미국의 공중 과학도서관 온라인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의 발표(2015년 1월 20일)에 따른 것이다. 껌씹기가 치실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입 속의 세균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금연에 도움...정신집중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껌을 금연을 결심한 애연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부터 흡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껌을 대체용품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껌씹기는 실제로 정신을 집중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안한 마음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데도 효과적이라는 발표가 있다.

단국대학교 김경옥 교수의 학회발표 논문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껌을 씹는 행위는 뇌기능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완작용과 행복감을 증가시켜 준다. 또 껌씹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스윈번대학교 앤드류 슐리(Andrew Scholley)의 연구에 따르면, 껌씹기를 한 후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껌 시장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자일리톨껌은 연간 1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제과

코르티솔의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혀졌다. 애연자들의 금단증상으로 대표되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짜증, 갈증, 손떨림, 어지럼증 등을 껌씹기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증거다.

그동안 껌씹기는 주로 충치예방과 입 냄새 제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발견'되고 있다.

●껌씹기, 인지증 예방과 기억력 상승에도 도움

최근 일본의 시나가와 치과대학 오노즈카 미노루 교수는 '껌만 씹어도 머리가 좋아진다'는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오노즈카 교수는 껌을 씹으면 사람들이 젊어지고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껌씹기는 인지증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밝

혔다. 인지증이란 질병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지기능이 손상되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지장을 주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 인지증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연구도 있다. 또 오노즈카 교수는 "껌씹기는 해마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상승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또 아세틸콜린의 감소를 억제시켜 알츠하이머를 예방해 주며 공간 인지능력을 개선하고, 뇌 경색을 예방해 인지증을 예방해 준다"고 저서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면역력 저하 막고 다이어트에도 도움

껌씹기는 자율신경 림파구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막아주고, 히스타민 증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엔 껌씹기가 면역력을 높여줘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껌씹기가 스트레스 해소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워싱턴대학교 이상직 교수의 연구에도 나타난다. 이 교수는 껌을 씹으면 뇌혈류량을 증가시켜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적 능력을 높여주는 한편 기억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했다.

●껌씹기의 다양한 효능, 시장 규모도 날로 확대

씹기에 대한 효과는 이미 수세기 전부터 밝혀져 이를 질병치료에 적용해 왔다. 가장 인기 있는 효과가 소화작용이다. 껌을 씹으면 타액분비를 촉진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에 도움을 준다. 또 고령 영양섭취에도 도움을 주고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촉진하여 소화는 물론 배변에도 좋다.

세계적으로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씹는 능력을 잘 유지해 영양을 고루 섭취한 덕분이라는 보고도 있다. 또 껌씹기는 장폐색증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폐색증이란 장의 일부가 막혀 통과 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2006년 미국 로보슈스터(Rob Schuster)와 3명의 연구에 따르면, 결장 수술을 받은 환자 34명을 하루 3회 껌을 씹게 한 뒤 방귀나 배변, 배고픔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방귀(18.5%), 장운동(29.3%), 배고픔(12.8%)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껌에 대한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껌 시장은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9년 1700억원대에 머물던 껌시장은 2014년 28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자일리톨껌은 연간 13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갖 수확한 햇 농산물 드셔보세요” 신세계가 봄을 맞아 31일부터 본점 식품관에서 올해 첫 수확된 다채로운 햇 농산물을 선보였다. 당도가 뛰어난 제주산 애플망고,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제주산 블루베리, 열대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태국산 망고스틴, 유기농 아스파라거스 등 무릇무릇한 햇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사진제공 | 신세계

삼성-LG “우리 법정분쟁 그만해요”

세탁기 파손·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등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취하하기로 합의

‘세탁기 파손’과 ‘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유출’ 등의 논란으로 법정다툼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와 LG전자-LG 디스플레이는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3월31일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대해 고소 취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분쟁은 ‘세탁기 파손 사건’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유출 논란’ 등이다. 양사는 이와 관련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기간 중 LG전자 조성진 사장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의혹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조 사장과 LG전자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제품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판단해 조 사장과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합의에 도달한 데는 양사 최고경영자들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이번 합의는 엄중한 국가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에 힘을 모으고,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자는 최고경영진의 대승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푸마 러닝레이스 ‘이그나이트 서울’ 5월17일 개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가 5월17일 러닝레이스 ‘이그나이트 서울’(사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완벽한 쿠셔닝을 자랑하는 푸마의 ‘이그나이트’ 러닝화를 론칭하면서 전 세계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대규모 푸마 러닝 캠페인 ‘이그나이트 유어 시티’의 일환이다.

행사는 도심 속에서 즐기는 달리기를 모토로 진행된다. 짧은 거리 홍대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거쳐 여의도 공원으로 이어지는 10km 코스로 구성된다. 코스 중간에는 이그나이트 러닝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부스와 볼거리도 준비돼 있다.



참가 신청은 4월 20일부터 G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4만원이다. 참가 인원은 1만 명인데, 신청자들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발표는 4월24일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푸마의 기능성 티셔츠가 증정되고, 레이스 종료 후에는 애프터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하이마트 노·사·정 사회적책임 실천 협약

롯데하이마트가 31일 오전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이동우 대표이사, 권익재 노동조합위원장, 고용노동부 이덕희 서울강남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협약을 통해 일자리 확대와 차별 없는 일터 구축을 다짐하며 일과 가정 양립과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또 노사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롯데홈쇼핑, ‘롯데OneTV’ 채널 오픈

롯데홈쇼핑은 31일부터 ‘독립형 데이터홈쇼핑 서비스’인 ‘롯데OneTV’를 KT 올레TV 채널 36번에 오픈한다. 롯데OneTV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상품’이라는 콘셉트로 판매자의 자율 입점과 구매자의 선택 시청 방식으로 운영되는 오픈형 데이터홈쇼핑이다. 홈쇼핑 업계 최초다. 상품 수와 편성시간 등에 대한 제한 없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입점 절차와 방송 시간의 제약이 있었던 기존 TV홈쇼핑의 단점을 해소했다.